

3분기 '역대급 매출' 찍은 네카오, 'AI 패권' 선점 박차

네이버 영업익 15% 늘어 3802억
 “하이퍼클로바X로 B2C·B2B 공략 서비스·사업 전개, 이달중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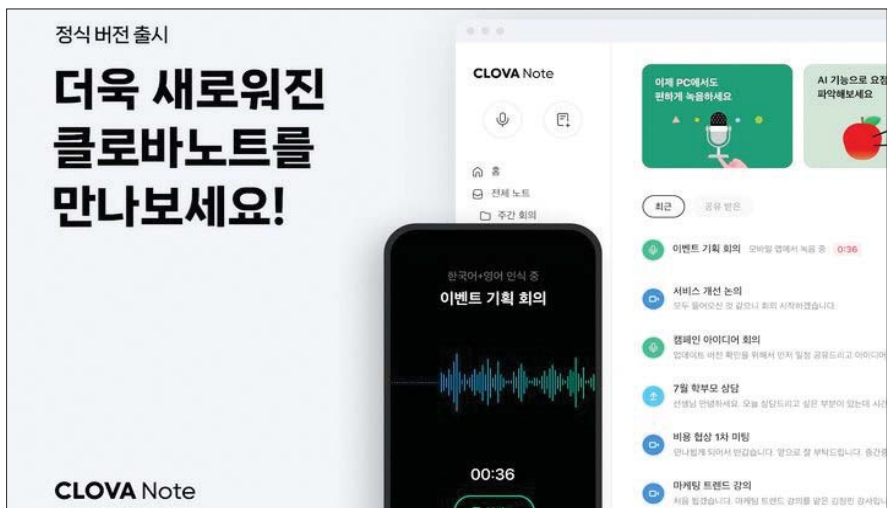
카카오 영업익 1403억, 7% 줄어
 오픈채팅 결합 AI콘텐츠봇 준비중

3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AI(인공지능)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네이버는 자사 AI를 활용하고, 카카오는 메신저에 로컬서비스를 도입이 핵심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 3분기 매출은 각각 2조4453억원, 2조1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16.0% 증가했다. 양사 모두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1403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80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이버 “AI 상용화 집중”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과



네이버가 AI(인공지능) 회의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노트’를 지난 6일 정식 출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

커머스, 금융 등 기존 사업과 결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과 다른 기업과 협력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모두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커머스 솔루션을 강화한다. 그동안 중소기업(SME) 대상 AI 솔루션에 집중했다면 3분기에는 브랜드스토어를 대상으로 솔루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솔루션은 지난달 기준 구독자 수가 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실적 컨

퍼런스콜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 서비스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물리적 독립성이 보장돼 보안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는 의미 있는 레퍼런스가 만들어져 이달(11월) 중 사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네이버는 지난 8월 ‘단(DAN)23’ 컨퍼런스를 통해 하이퍼클

로바X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속속 전개 중이다.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가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공개한 LLM ‘하이퍼클로바’를 한층 고도화한 버전이다.

◆카카오, AI 광고 사업 확장

카카오 역시 자사 생성형 AI 기술을 발판 삼아 광고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9일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최근 오픈AI가 서비스와 고객을 연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야말로 모바일 메신저라는 가장 실행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운영해오면서 서비스와 고객을 연결하는데 강점이 있다”며 “오픈채팅과 결합된 AI 콘텐츠봇을 출시해 검증 과정을 조만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는 효율에 따라 빅테크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AI 기술을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카카오브레인 자체 모델 ▲튜닝된 오픈소스 모델 ▲글로벌 빅테크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둘 예정이다. 즉, 구현하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

을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 유연하게 채택한다는 전략이다. 그 시작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결합된 AI 콘텐츠 봇을 출시, 연내 10여개 주제로 기술실증(POC)을 거쳐 확장성과 유용성을 검증한다.

홍 대표는 “자체 개발 중인 파운데이션 모델 중 일부 모델은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고 글로벌에서 공개돼 있는 오픈소스 모델의 파인튜닝(미세 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구현하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을 비용 효율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기존 모델을 고도화한 ‘코GPT2.0’을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분간 경영상 닦힌 위기를 풀어나고 AI전략에 돌입하겠다는 분위기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 D램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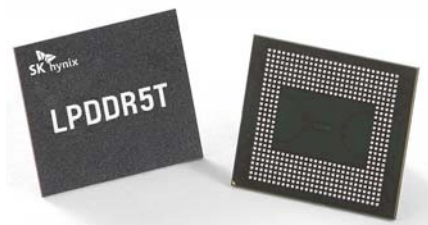
중 비보에 ‘LPDDR5T’ 공급
 플래그십 X100·X100프로에 탑재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새로운 모바일 D램, LPDDR5T가 스마트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가 기존 최고속 모바일용 D램 메모리인 ‘LPDDR5T(Low Power Double Data Rate 5 Turbo-저전력 이중 데이터 전송 5 터보)’의 16GB(기가바이트) 패키지를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LPDDR5T는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개발한 모바일 D램 규격이다. JEDEC 표준을 기준으로 LPDDR6에 앞서 7세대인 LPDDR5X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모바일 AP 업계와 검증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고 상



SK하이닉스 LPDDR5T /SK하이닉스

용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 비보에 납품을 시작했다. 이날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 X100과 X100프로에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과 함께 탑재했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 속도가 구현된 LPDDR5T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메모리”라며 “당사는 앞으로 이 제품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모바일 D램의 세대 교체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LPDDR5T는 초당 9.6Gb(기가비

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이번에 납품되는 패키지 제품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77GB로 FHD(Full-HD)급 영화 15편을 1초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또 LPDDR5T 16GB 패키지는 국제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가 정한 최저 전압 기준 범위인 1.01~1.12V(볼트)에서 작동한다.

SK하이닉스 박명수 부사장(DRAM 마케팅담당)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은 온디바이스(On-Device) AI기술이 구현되는 필수 기기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바일 시장에서 고성능, 고용량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당사는 시장 수요를 잘 맞춰가는 한편, AI 메모리에서 확보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D램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옥, 삼성본관 이전

서울 강남 등 떠돌다 24년만에 돌아와

삼성그룹 모태기업,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서울 태평로로 돌아왔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13일 삼성본관으로 사옥 이전을 완료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삼성본관을 처음 세운 1976년부터 입주해 1998년까지 사옥으로 사용해왔다. 25년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셈. 이후 경기도 성남과 서울 강남 등으로 떠돌다가, 2016년부터 서울 송파구 향군타워에서 지내왔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삼성본관으로 다시 돌아오게된 이유는 삼성 계열사 효율을 높이는 개편 작업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군타워를 쓰는 삼성SDS가

인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로 하면서 삼성물산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삼성본관에 새 등지를 틀기로 한 것. 계약기간은 2028년 7월 31일까지로, 연간 임차료만 102억원으로 알려졌다.

삼성본관은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이 점찍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풍수지리 명당으로, 실제로 삼성본관 시대를 맞아 삼성그룹이 재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선택과 집중’ 전략 아래 과감하게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수 산업재 트레이딩과 친환경 사업 개발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토요타코리아, 5세대 프리우스 국내 출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종

하이브리드가 원조 토요타 프리우스가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토요타코리아는 오는 12월 13일 5세대 프리우스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도 시작했다.

프리우스는 라틴어로 ‘선구자’라는 뜻으로, 하이브리드 시장을 개척하고 토요타 전동화 기술을 이끈 모델이다. 국내에는 2009년 3세대 모델부터 공식 출시돼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오고 있다.

5세대 프리우스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Stylish Design to Inspire the Senses)’을 콘셉트로 개

발했다.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간결한 캐릭터 라인으로 미래적인 실루엣을 완성했다. 더 낮은 차체와 해머헤드 콘셉트 전면 디자인, 에어로 다이내믹도 개선했다.

국내에는 하이브리드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출시된다. 전작보다 커진 2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PHEV는 1.5배나 용량을 키운 13.6kWh 리튬이온 배터리로 64km를 달린다.

2세대 TNGA 플랫폼도 특징이다. 저중심 차체 설계를 강화하고 차체 경량화와 고강성화도 실현해 안정성과 핸들링 성능을 높였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미래형 오피스빌딩 사업 가속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 체결 오피스빌딩에 ‘캄테크’ 실현 목표

삼성전자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캄테크’ 기반 사무 공간을 만든다.

삼성전자는 13일 서울시 ‘Ncloud Space’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국내외 미래형 인텔리전스 오피스빌딩 사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진행됐다.

플랫폼 서비스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솔루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삼성전자와 네이버클라우드는 B2B 고객 대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화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5G 등 기술을 네이버 1784 사옥에 적용된 네이버클라우드 자체 솔루션을 연동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오피스빌딩에 ‘캄테크’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빌딩관리시스템(BMS)을 단순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확장해 빌딩통합제어 에너지 출입과 보안 관리



삼성전자 한국총괄 겸 B2B 통합오퍼링사무국장 강봉구 부사장(왼쪽)과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까지 가능한 미래형 인텔리전스 오피스빌딩 토탈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재용 기자